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12. 8. (목), 14:00~18:20
- ▣ 장 소 :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1동 906호)
- ▣ 출석위원 :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3
2	「한양도성」(신청명 : 조선의 수도성곽과 방어산성 :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12
3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	28

【검토사항】

1	안동 하회마을 주민생활 기반시설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41
2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43

심 의 사 항

1.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가. 제안사항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2017년 제5차 회의(2017.12.15.)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잠정 목록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재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6조

-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산을 직권으로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그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여부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등재추진 경과

- 2017.6.27. : 잠정목록 심의(14개 유산) “보류”

- 보류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등재범위 타당성, 연속유산 선정논리, 보존관리 계획 등에 대한 보완 후 재검토

- 2017.12.15. : 잠정목록 심의(8개 유산) “조건부 가결”

- 조건 : 피란생활상 반영 유산 추가, 신규 추가 유산 포괄 종합 보존관리계획 수립

- 2018.1.4. : 문화재청 현장점검

- 2022.10.31. : 조건 해소 후 잠정목록 등재 신청(9개 유산)

- 2022.11.16.~11.17. : 문화재청 현지조사

라.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주요 내용(*부산광역시 작성, 세부내용은 요약자료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The sites of the Busan Wartime Capital)

- 신청유산(9개소)

정부유지(3)	국제협력(4)	피란생활(2)
경무대 (임시수대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국립중앙관상대 (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 (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항 제1부두 *피란생활도 일부 연관 하야리아기지 (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부산재한유엔기념공원)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 등재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20세기 냉전기 최초 전쟁인 한국전쟁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히 활용되어 1,023일 동안의 피란수도 기능 유지를 보여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특출한 증거물이다.

- 등재기준 상세 내용

- 부산은 냉전기 최초로 발발한 전쟁 중에 국가와 피란수도 내·외부의 여러 문제를 해소했던 거대한 역사적 장소였다. 당시 피란수도 부산에서는 정부유지 기능을 기본으로 피란민 생활 지원, 유엔과의 소통·연대와 관련된 국제협력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수행되었고, 국민과 피란민 구호, 전쟁 포로의 수용과 관리, 유엔군 전사자의 안치 등 다양한 실천적 활동이 이루어졌다.

-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은 대한민국 정부의 존속을 위한 기본 삼권의 유지 및 피란민을 수용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더불어 부산은 '냉전기의 피란수도'였기에 국제공조 차원에서 유엔의 참전과 지원을 받아들였던 최초의 도시였고, 전쟁에 따른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했던 다양한 구호 활동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정부유지, 피란생활, 국제협력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지닌 유산들의 총체로서, 특출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 신청 유산은 한국전쟁기 중 1,023일 동안 피란수도로 기능했던 부산의 건축물 5개소와 장소 4개소이며, 신청 유산 중 유엔묘지를 제외한 8개 유산은 구한말(대한제국시대)과 일제강점기에 조성되거나 건립된 공공시설들이었다. 전쟁 발발 후 불과 50여일 만에 남한의 대부분은 점령되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남쪽의 국토만이 남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신청 유산들은 피란수도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정부에 의해 긴급 활용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 전쟁 발발 후 70여 년 동안 부산의 도시공간 대부분은 개발로 인한 해체와 대체, 파괴와 건설을 반복하며 현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피란수도의 주 무대였던 원도심 일원은 피란민의 삶터로 유지되면서 과거의 역사와 장소성이 보존될 수 있었다. 피란수도의 각종 공간과 시설들이 도시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차례 유산 보존 및 반환을 요구한 시민운동과 민관협치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피란수도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도심 공간의 골격을 이루었던 신청 유산은 1953년 8월 서울 환도 후 본격화된 도시개발 속에서도 피란수도 당시의 긴급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의미와 상징,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 신청 유산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냉전기라는 새로운 국제관계 전환기에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정부와 시민, 그리고 유엔의 협력으로 전쟁의 상처를 함께 극복한 피란수도 부산의 지금도 살아있는 독특한 증거이다.

○ 기존 등재신청 비교 변경·수정 세부사항(요약본 기준)

	2017 신청서(당초)		2022 신청서(수정·변경)	
	해당사항	심의검토의견	해당사항	설명
신청 유산	8개소	(‘17.12.) 피란민생활 유산이 포함되는 등 유산목록에 대한 재조정 필요	9개소	· 피란민을 포괄할 수 있는 유산요소 선정 지적에 따른 피란생활상 반영 유산 추가, 연속유산 선정논리의 강화 - 유산에 대한 조사연구검토 후 피란생활유산인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2개소 포함, 연관성 및 근거자료 미약한 유산(유엔군지상군사령부) 제외
개요	-	-	p1~2 	· 신청유산에 대한 기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청유산 개요를 별도로 구성하고 유산구역, 완충구역 지도를 제시 · 유산위치표시지도는 지형학적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로 수정

	2017 신청서(당초)		2022 신청서(수정·변경)	
	해당사항	심의검토의견	해당사항	설명
유산 설명	<p>피란수도 정의 1,129일의 전쟁기간 중 90%가 넘는 1,023일 동안 2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부산은 정치와 전쟁 수행의 중심지가 되면서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p>	<p>(‘17.12.) 한국전쟁의 역사적 주인공인 피란민과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 필요</p>	<p>p3~5 피란수도 정의 신청 유산인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냉전기 최초 전쟁인 한국전쟁 중 국민안전을 위한 피란수도의 기능 유지와 피란민 보호를 위해 정부·시민·유엔의 상호공조로 긴급활용된 특출한 증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란수도 부산의 기능 및 역할 명시 · 피란수도의 특성을 정부유지, 피란생활, 국제협력 기능으로 구분하여 유산 간 연계성 확보를 통한 유산 선정 사유 확립 · 피란민 보호와 생활 유산의 포함으로 피란수도의 정의 보강 · 신청서 전반에 걸쳐 국제협력 기능 강조한 부산과 유산의 역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통된 염원인 평화의 실현이라는 세계유산적 가치 강조 · 피란수도 기능에 따른 각 유산의 기능별 설명
등재 기준	<p>(iii) 20세기 냉전기 최초로 발생한 전쟁에서 정부, 국민과 유엔이 협력을 통해 전쟁의 극복과 인류애의 실현을 보여주는 증거 (vi) 유엔군이 최초로 참전한 전쟁으로 국제평화 수호와 국민안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p>	<p>(‘17.12.) 유산목록에 대한 재조정 등에 따른 등재신청기준 재고, 진정성의 충족 여부 보안을 위한 피란민 관련 요소의 포함 검토</p>	<p>p6 (iii)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20세기 냉전기 최초의 전쟁인 한국전쟁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히 활용되어 1,023일 동안의 피란수도 기능 유지를 보여주는 지금도 살아 있는 특출한 증거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재기준 (iii),(vi)에서 (iii)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중의 피란수도 기능유지를 특출한 증거로 한 등재기준의 변경 ·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기능을 위한 긴급 활용된 증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란수도의 급박함이 만들어낸 문화적 전통 (기능 및 생활상)을 부각하여 OUV설명 보완 - 한국전쟁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란수도의 역할을 유지해 온 부산의 유산에 대한 가치 설명 · 기능(정부유지, 피란생활, 국제협력)과 속성(피란수도기능, 긴급활용방식)에 따른 세분화를 통해 유산 간 연결고리 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유산속성과 OUV 및 등재기준과의 연관성 설명 · 도시유산이라는 특성에 따른 개별유산의 보존관리와 개발에 따른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시민들의 보존활동 노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야리아기지,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의 반환 운동 등 - 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한 유산별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설정 - 문화재 등록·지정·승격 등 진행에 따른 내용 반영 - 보존관리 체계의 구체화 및 진정성 유지방안 마련 · 설명자료에 그 외 유산별 유형에 따른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도면추가, 보존관리 현황 및 체계 제시, 등재를 위한 부산시와 시민의 노력, 관련 사업 등의 자료 제시
진정성 및/ 또는 완정성 에 관한 기술	<p>보존관리 현황 제시 보존관리 체계 제시</p>	<p>(‘17.6.) 도시개발계획이나 개별유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개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보존계획의 수립 필요</p> <p>(‘17.12.) OUV를 충족시키기 위한 점단위 개별유산을 넘어서는 면단위 유산구역 설정 고민 필요</p>	<p>p7~8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유산 문화재 승격 등 변화 내용 개별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보존관리 현황 조사·반영 보존관리 체계의 구성 보완</p>	
유사 유산 과의 비교	<p>국외의 전쟁, 협력/평화/화해 관련 유산사례 비교</p>	<p>(‘17.12.) 국내외 사례 비교연구 더 면밀하게 진행 필요</p>	<p>p9 국외의 전쟁, 피란수도, 피란(긴급활용), 국제협력, 기타(모지) 관련 유산 사례 비교 국내 한국전쟁 유산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성과 테마별 다각도 심층비교와 사례 확인을 통한 신청유산의 특출함과 희소성 강조와 유일한 사례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란수도 기능 관련 비교 예로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 등 - 긴급활용의 비교 예로 ‘아프라바시 가트’와 ‘고레섬’, ‘울드홈’ 등 - 국제협력의 비교 예로 ‘모스타르 옛 시가지 다리’, ‘랑바레네의 옛 슈바이처박사 병원’ 등 · 설명자료에 그 외 비교자료 추가와 2022년도 기준 비교자료의 현행화 및 조사 진행

바. 현지조사 전문가 검토 의견

- 조사일자 : 2022.○.○.(수)~○.○.(목)
- 조사자 : ○○○(○○○ 교수), ○○○(○○분과 전문위원), ○○○(○○○ 교수), ○○○(○○분과 전문위원)
- 조사의견(요약)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충족 및 등재범위(지역적 범위)

1) 등재신청기준 충족여부

- 신청유산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기에 벌어진 최초의 전쟁기에 이를 증거하는 실증적인 유산으로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등재기준 (iii)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음. 갑작스럽게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정부(행정)의 공백을 최소로 줄이고 신속한 기능회복과 업무수행 등을 위해 기존 건축(시설)물을 긴급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신청유산이 한국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명적 증거로서 독특한 가치를 지닌 유산임을 보여줌
- 신청유산은 피란수도의 기능, 긴급활용방식이라는 2가지 속성을 제시하고 있음. 피란수도의 기능은 정부유지, 피란생활, 국제협력으로, 긴급활용방식은 원형활용과 조성활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신청서에 제시된 속성과 관련유산의 연관성은 적절하게 제시되었지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고 강화하는 유산을 좀 더 포함할 필요 있음. 신청서 내 피란수도를 정부유지, 국제협력 등 정치외교적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산의 역할과 인도적 차원의 활동(의료지원, 포로수용, 구호활동, 교육시설, 종교, 문화예술, 치유를 위한 활동 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금도 살아있는 특출한 증거물이다’는 현존하는 의미와 함께 기능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전쟁 후 복구·개발로 인해 관련 유산 상당 부분은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해당 부분 기술에 보완 필요함

2) 완전성 충족여부

- 신청서에 제시된 개별유산(구성요소)은 각 속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피란수도의 기능과 역할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한국전쟁기 부산 피란수도 전체 또는 본래의 모습을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요소 중 추가할 수 있는 유산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신청유산 대다수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오랫동안 개발 압력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어 어느 정도 완전성을 충족하고 있음
- 피난민들의 삶의 현장과 정부와 국제기구의 노력을 보여 주는 실증적 장소들의 보완이 필요함. 의료, 교육, 종교시설, 문화예술활동 공간들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함

3) 진정성 충족여부

- 신청유산은 긴급 상황에서 대체 활용된 건축물, 시설물들이 대부분이며 유산의 원형 문제와 별개로 그 활용도를 고려한 기능적 측면으로는 어느 정도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유산마다 진정성 충족 여부의 차이가 있으며 외형위주 보존방식으로 본래 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유산은 문헌, 사진자료들을 활용하여 진정성 보완이 필요함
 - 경무대는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 임시수도 정부청사,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 하야리아기지내 장교클럽은 외형위주 보존으로 내부구조를 전면 재구성하여 당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없음
 -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최근 원형회복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는 일부 원형을 볼 수 있고 최근 원형회복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후대 변형과정이 계속되고 있어 유산의 진정성을 '타'의 가치로 확보해야할 것임
 - 국립중앙관상대, 유엔묘지, 부산항 제1부두는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 하야리아기지는 시민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과정에서 군 주둔지로서의 옛 모습을 상실하여 진정성이 다소 결여되어, 기지 내 각 유산들에 대한 건축적 내력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에 대한 추가적 발굴이 필요함
-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는 의도적으로 일본인 공동묘지를 마을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등재 범위의 타당성(유산의 구성, 유산구역의 설정 등)

- 유산구역, 완충구역은 현재 확보된 법적 지위와 관리체계에 맞춰 설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는 없어 보이나, 신청유산의 일부구역 재설정 및 조정 검토 필요함
 - 경무대와 임시중앙청은 정부유지 시설로서 공통 기능을 수행하고 인접지역에 위치하므로 하나의 유산구역으로 설정 가능하고, 국립중앙관상대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겹치는 부분은 분리검토가 필요함
 - 하야리아기지는 시민공원으로서 지정 관리되어 있어 완충구역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유산구역 내 위치하는 구성요소(미군장교클럽, 하사관숙소, 컨셋막사)는 유엔군 기지보다는 미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유엔군 기지로서 진정성 보완이 필요함. 또한 도면이나 기록을 참고하여 필지선 기준이 아닌 원형의 모습에 근거해 유산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보이도록 유산구역을 재구획할 필요 있음
 -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는 현재 비석이 활용된 극히 일부 유산만 구역설정 되어있으므로 비석의 활용과 비활용을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유산구역 범위 재설정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는 완전한 원형 복원이 아닌 극히 일부만 복원된 형태로, 위쪽에 위치한 유존지역을 사진 및 도면 등을 참고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 후 유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함

- 미국 대사관 겸 미국공보원은 당시 미정부의 국외홍보와 문화교류 활동이 주요기능으로 한국전쟁기의 외교활동의 공간과 역할이 미국에 치중되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청대상유산 포함여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한국전쟁기의 원조활동에 대한 소개 및 위문활동 등에 초점을 두어 피란민의 생활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피란수도 부산은 부산 원주민과 피란민이 함께 공존한 공간인 만큼 전쟁 중의 주민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유산의 추가 개발이 필요함. 현재 아미동과 우암동 유산은 피란민의 궁핍한 생활에 치중해 있음

5) 비교연구의 적절성

- 전쟁기간에 피란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피란민 보호, 국제협력의 실천을 보여주는 유산으로서는 유일하여 신청유산의 차별성을 볼 수 있지만, 비교연구에서 유산의 탁월한 가치와 보편성을 확보해야함
 - 프랑스와 벨기에가 함께 추진 중인 '제1차 세계대전 장례와 추모 유산(Sites funéraires et mémoriels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Front Ouest. 2014)'은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유산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였던 유산은 원래 성격과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도 하였고, 일부 유산은 보존 상태도 양호하지 않으므로 기록이나 사진 등에 의해 유산 성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예시가 있는지 검토 필요함
- 신청유산은 긴급활용이라는 목적에 따라 근현대건축물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기능적 변용으로서 진정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근현대건축물에서 비교방식을 선정할 필요 있으며, 유산의 진정성이 유산의 원형보존과 기능적 변용과 관련해 내부구조 변형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비교연구 필요함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 신청유산 9개소 대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부산광역시 등록문화재나 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나 지자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 관리 받고 있으며 부산항 제1부두의 경우는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부산시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1부두 보전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관리는 높이 평가 받을 만함. 또한, 신청유산은 5개의 건축물과 4개의 장소로 구성되며 각각의 특성에 맞게 유산구역(건축물형과 장소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완충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
- 신청유산의 구성요소 모두가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주변에서 개발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부산시의 보존관리 의지, 비전, 세부적인 보호관리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는 가옥의 노출된 벽재의 보수 및 유지 방안 등 보존 방식 모색이 필요하며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는 현재 복원중인 가옥과 원형 유지된 가옥을 포함하여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진정성을 유지할지에 대한 고려 필요함. 하야리아기지 내 컨셋막사는 공원 내 편의시설로 활용되어 일부만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하며 편의시설로서의 활용이 유산의 진정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함

지자체 및 주민의 의지 및 향후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신청유산 9개소의 관리주체는 중앙정부, 부산광역시 및 개별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유산은 국가 및 지자체 등록문화와 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음. 2016년 부산시는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업무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고 있음
- 부산시와 주민 자치단체, 부산관광공사 등에서 자발적으로 '피란수도 1023' 제목 아래 보존 관리 활용을 하고 있고 민관 각층에서의 노력은 고무적임
- 유산 보존관리의 공동 목표 달성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 필요함
- 현재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아미동과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경험을 공유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

기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한국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인 국제이슈이므로 등재준비 시 한국전쟁 참전국가들과의 협력관계 형성 등 국제연대가 필요함
- 피란민과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연결고리 다소 빈약해 보완 필요함
 - '국제시장', '보수동 책방거리' 등의 유산을 향후 대상유산에 포함할 것 고려
 -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은 피란 당시 건물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행위가 피란 정부와 전쟁을 극복하는데 끼친 영향 등 역사적 조명 필요함
 -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의 의미를 '터' 또는 일종의 주거시설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있으며, 묘지 주인 및 후손들이 이해당사자 가능성 있으므로 기억 공유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해 보임
- 부산의 공간구성(도심부, 해안부, 그리고 이에 연접한 구릉지)과 유산의 기능적 상관성을 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도심부 : 정부유지뿐만 아니라 문화수도로서 피란수도의 면모 고려할 필요 있음 (보수동 책방골목 등 문화생활 관련 유산)

- 도심부 산지 : 국립중앙관상대(북명동 배수지도 추가 고려할 필요 있음)
- 도심외곽 : 갑작스런 인구 증가에 따른 피란민의 곤궁한 생활(아미동, 우암동 피란주거지)
- 해안부 : 부산항 제1부두를 기준으로 동편으로 국제협력 공간(하야리아기지, 유엔묘지)

사. 소관부서 검토 의견

- 피란민 생활사 추가, 종합보존관리계획 수립 등 기존 지적사항을 보완·수정한 점은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보존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간다면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반은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갖추어 진 것으로 보임
- 현 시점에서의 보존이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 및 행정조치가 필요함
- 문화재청 예규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잠정목록-우선등재목록-등재신청후보-등재신청대상>의 각 심의단계별로 집필진, 전문가, 문화재청의 검토를 통해 신청서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고려하면서 '잠정목록' 단계에 신청유산이 적합한지의 검토가 필요함

아. 의결사항

- 원안 가결함
 - “피란수도”의 구조와 현상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면 단위의 도시적 접근 필요
 - 행정구역 단위를 초월하여, 한국전쟁기 피란수도와 관련된 시설들이 구성요소에 적절히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연구 권고
 - 관계전문가의 추가 자문을 거쳐 세계유산센터 등록을 위한 잠정목록 신청서를 작성(국문, 영문)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 출석 8명 / 가결 4명, 부결 3명, 제척 1명

2.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가. 제안사항

「한양도성」(신청명 : 조선의 수도성곽과 방어산성 :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에서 「한양도성」(신청명 <조선의 수도성곽과 방어산성 :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The Capital City Wall and Mountain Fortresses of the Joseon Dynasty : Hanyangdoseong, Bukhansanseong and Tangchundaeseong>)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2022년 제4차 회의(2022.7.14.)에서 “보류”됨에 따라,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재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9조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 보존 관리 계획

다. 등재추진 경과

○ 한양도성 등재 추진경과

- 2012.11. : 잠정목록 등재
- 2014.11.4. : 2016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대상 선정
(2014년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
- 2016.1.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7.3. : 이코모스 등재불기(Not be Inscribed) 권고 → 등재신청 철회 이후 “잠정목록” 지위 유지

- 등재기준 (iii), (iv) 유산관리 전통, 건축유형 면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 유산구역 확대(이코모스 패널 권고사항)했으나, 여전히 완전성 부족

- 2019.1. : 우선등재목록 심의 / '보류'(한양도성 단독 신청)

- 다음의 사항을 보완하여 '19년 하반기 이후 재심의할 것
- 보완사항: 1차 등재심사 시 지적사항, 기초조사, 비교연구, OUV 명확화, 문화재위원회 및 전문가 검토의견

- 2020.2. : 우선등재목록 심의 / '보류'(한양도성 단독 신청)

- 등재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비교연구를 위한 다수의 국내외 자료를 확보하였음
 - (iii)조선시대 성곽 건설 및 관리의 특출한 증거, (iv)산성과 도성이 단일화 된 한반도 도성 유형의 중요한 발전단계
- OUV가 14세기에 집중되어 있고, 설명 및 비교연구가 등재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재신청 유산이므로 향후 유네스코 신청 가능성을 고려한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 필요

○ 북한산성 등재 추진경과

- 2018.4. : 「북한산성」 잠정목록 심의 / '부결'

- 한양도성과의 연속유산으로 검토가 필요함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서울시·경기도 등재 추진경과

- 2020.11.~2021.9. : 북한산성 및 탕춘대성 기초연구

- 2020.12.~2021.8. : 「연속유산 구성을 통한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방안 용역」 추진

※ 연구결과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통합등재 권고

- 2021.2. : 서울시-경기도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합의(공문)

- 2021.3.~ : 서울시-경기도 세계유산 등재추진 협의체 구성(월1회 정기회의)

- 2022.7. : 한양도성-북한산성-연용대성 우선등재목록 심의 / '보류'

- 연속유산 등재는 타당하나, OUV 및 비교연구 서술에서 정합성 부족

- 2022.8. : 서울시·경기도·고양시 통합연구체계 구축(주1회 상시회의 및 공동연구)

- 2022.9. : 서울시·경기도·고양시, 등재TF팀 구성

- 2022.9.30. :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한 등재 공감대 형성

○ 유산 구성

연번	구분	문화재명	문화재 종목(지정일)
1	한양도성	서울 한양도성	사적(1963.1.)
2	북한산성	북한산성	사적(1968.12.)
3	탕춘대성	홍지문 및 탕춘대성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3호(1976.6.)

라. 우선등재목록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우선등재목록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한양도성 신청내용(*서울특별시 작성, 세부내용은 요약자료 참조)

1) 등재 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 세계유산 등재TF팀 구성·운영

구분	소속 및 분야	인원
지자체 및 기관 등재신청 전담 연구원	서울시 문화재관리과	4
	경기문화재연구원	4
	고양시 문화예술과	1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진	최신의 세계유산제도에 맞춰 등재전략 수립, OUV 발굴 및 논리보강을 위한 비교연구, 등재절차 이행 등	7
합계		16

○ 신청유산 관련 위원회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16명) : 한양도성 보호·관리·활용 관련 정책 제안, 도시경관 관리 차원에서 도성 내·외부 개발계획 방향 검토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18명)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논의
- 한양도성 행정협의회(16명) :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및 기본원칙 논의
- 서울시·경기도·고양시 통합 위원회는 향후 구성 예정

○ 등재 추진조직 및 추진방식

단계	추진조직	조직구성	추진방식
1단계> 잠정목록- 신청후보	등재TF팀(현재)	서울시 문화재관리과, 경기도 문화유산과, 고양시 문화예술과	· 서울시 및 경기도 간 협의·조정 · 등재에 필요한 각종 사업 공동 진행 · 문화재관리는 현행 유지
2단계> 신청대상-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서울시·경기도 산하 사무국 운영	· 통합관리계획 수립 · 통합등재 추진 및 자문위원회 운영 · 유산별 관리단체와 사무국이 보존관리 협의 진행
3단계> 등재 이후	세계유산센터	서울시, 경기도 공동출자 재단법인	· 유네스코 권고사항 · 정기보고 및 보고서 작성 · 세계유산관리기준 제시, 모니터링 · 홍보 및 교육 등

※ 우선등재목록 심의 이후 서울시-경기도 통합추진단 구성 예정

○ 향후계획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추진 단계	우선등재목 록	신청후보 및 예비평가	예비평가 결과 수령 및 등재신청대상 선정	신청서 초안제출	신청서제출 및 서면평가 현지실사	등재결정
등재 신청 연구	공 동 등재신청서 작성	예비평가 및 신청서 작성, (*문화재청과 협의 후 결정) 통합보호 관리계획 수 립	예비평가결과 반영 및 최종신청서 작성, 영문번역, 영상물·도면집·사진집· 기록물 등 첨부자료 제작		현지실사 및 자료추가 (1차)	자료추가(2 차)
학술 회의 및 홍보	공 동 OUV 설정 워크숍	국제전문가 초청 워크숍(등재신청 검증)			이코모스 (ICOFORT) 국제회의 유치	-
		국제심포지엄 (국제 네트워크 구축)				
		세계유산위원회 참가(WHC)				
모니 터링	공 동	탐방객 이용현황조사, 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등				
유적 정비	서 울 시	탕춘대성 발굴조사 (1차)	탕춘대성 발굴조사(2차) 및 사적 승격 추진	탕춘대성 3D 정밀실측	탕춘대성 정비	-
	경 기 도	행궁지정비 (7차)	행궁지정비 (8차) 및 훈련도감 발굴조사	행궁지정비 완료(9차) 및 금위영 발굴조사	어영청 발굴조사	-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 유산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성곽의 구성요소 모두 포함)
- 완충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유산구역과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 포함)

표 1. 한양도성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구분	유산구역	완충구역(법제도적 보호)
백악지역	성벽과 성문, 성랑지, 자연암반	명승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계, 자연녹지지역 및 공원의 경계
낙산지역	성벽과 성문, 자연암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계, 성곽마을의 지적경계
목멱지역	성벽과 성문, 성랑지, 자연암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계, 자연녹지지역 및 공원의 경계
인왕지역	성벽과 성문, 자연암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계, 자연녹지지역 및 공원의 경계

표 2. 북한산성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구분	유산구역	완충구역(법제도적 보호)
북한산성	성벽, 치성, 성문, 암문, 수문, 성랑지, 군영지, 장대(지), 행궁지, 승영사찰지, 관성소지, 창고지, 자연암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계, 국립공원 경계

표 3. 탕춘대성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구분	유산구역	완충구역(법제도적 보호)
인왕산구역	성벽, 자연암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계
홍지문구역	성벽, 성문, 수문, 자연암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계
북한산구역	성벽, 성문, 암문, 자연암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계

표 4.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일련 번호	연속 유산명	구간	지역/지구	중앙점 좌표	유산구역 면적	완충구역 면적	비고	
1	한양 도성	1-1	백악산 구간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N37°35'35" E126°58'25"	58.00(ha)	5,462.4(ha)	-
		1-2	낙산 구간	서울시 성북구, 종로구	N37°34'50" E127°00'31"	9.13(ha)		-
		1-3	홍인지문	서울시 종로구	N37°34'16" E127°00'35"	0.5(ha)		-
		1-4	이간수문	서울시 종로구	N37°34'05" E127°00'38"	0.48(ha)		-
		1-5	광희문	서울시 중구	N37°33'52" E127°00'36"	3.96(ha)		-
		1-6	목멱산 구간	서울시 중구, 용산구	N37°33'06" E126°59'16"	12.65(ha)		-
		1-7	승례문	서울시 중구	N37°33'36" E126°58'31"	1.93(ha)		-
		1-8	인왕산 구간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N37°34'51" E126°57'28"	0.57(ha)		-
2	북한 산성	2-1	성벽구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N37°38'26" E126°58'38"	43.31(ha)	5,462.4(ha)	-
		2-2	중성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55"N 126°58'17"E	0.09(ha)		-
		2-3	동장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37"N 126°59'0"E	0.001(ha)		-
		2-4	남장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9"N 126°58'21"E	0.01(ha)		-
		2-5	북장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9'10"N 126°58'12"E	0.01(ha)		-
		2-6	훈련도감 유영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9'4"N 126°58'21"E	0.25(ha)		-
		2-7	금위영 유영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16"N 126°58'48"E	0.14(ha)		-
		2-8	어영청 유영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8"N 126°58'36"E	0.35(ha)		-
		2-9	행궁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26"N 126°58'38"E	1.56(ha)		-
		2-10	중홍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45"N 126°58'36"E	0.94(ha)		-
		2-11	부왕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32"N 126°58'17"E	0.16(ha)		-
		2-12	관성소지 상창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29"N 126°58'46"E	0.18(ha)		-
		2-13	중창지-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42"N 126°58'38"E	0.10(ha)		-
		2-14	중창지-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41"N 126°58'33"E	0.50(ha)		-
		2-15	하창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9'12"N 126°57'35"E	0.25(ha)		-
		2-16	호조창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7°38'31"N 126°58'45"E	0.16(ha)		-
3	탕춘 대성	3-1	성벽구간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N37°36'18" E126°57'14"	9.95(ha)	-	
전체면적(총계)					145.181(ha)	5,462.24(ha)	5,607.421(ha)	

3)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가) 등재기준 : (iii), (iv)

-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 증거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8세기에 발전한 조선의 성곽 축성기술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예증한다. 지형을 활용한 성곽축성의 전통과 표준화된 가공술의 적용은 축성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강력한 중앙집권 하에 군인, 장인, 승려, 백성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현하였는데 이는 각자성석 등 각종 기록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이후 이러한 축성기술과 관리체계는 한반도 전역의 성곽건설에 영향을 미쳤다.

-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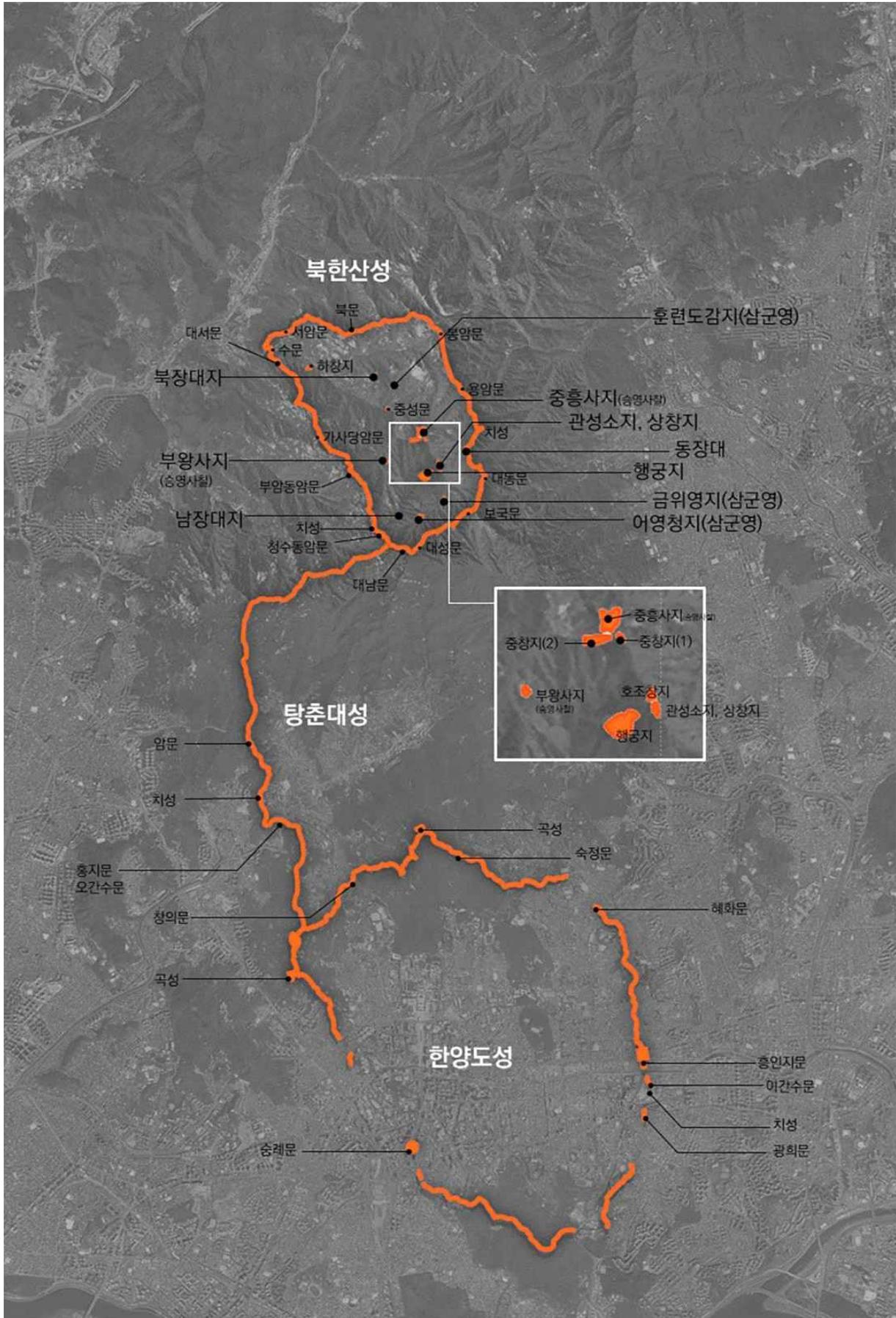
신청유산은 고대로부터 전승돼오던 수도성곽과 방어산성의 이원화된 방어체계를 18세기 수도방어전략의 변화에 대응하여 건설한 성곽군으로, 수도성곽과 방어산성을 차단성으로 연결하여 일체화된 방어시설로 구현하였다. 신청유산을 구성하는 성벽, 성문, 성내 건물지 등은 18세기 한반도 수도성곽 유형의 창의적 발전을 총체적으로 입증해 준다.

나) 유산에 대한 설명

○ 구성요소

연속 유산	구성요소		세부시설	기능	현황
한양 도성	방어 시설	성벽과 부대시설	성벽, 치성, 곡성, 자연암반	경계/방어	잔존길이 14.5km
		성문	성문, 수문	출입/배수	7개
		성랑지	성랑지	군사 초소	2곳
북한 산성	방어 시설	성벽과 부대시설	성벽, 치성, 자연암반	경계/방어	길이 11.6km
		성문	성문, 암문, 수문	출입/배수	16개
		성랑지	성랑지	군사 초소	59곳
		군영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성곽 관리, 군량 및 무기고	3곳
		장대(지)	동장대, 남장대지, 북장대지	군 지휘소	3곳
	성내 유적지	행궁지	궁궐과 궁장	피난 궁궐	1곳
		승영사찰지	중흥사지, 부왕사지	성곽관리, 창고	2곳
		관성소지	관성소지	성곽 관리	1곳
	창고지	상창지, 중창지, 하창지, 호조창지	군량 및 무기고	4곳	
탕춘 대성	방어 시설	성벽	성벽, 치성, 자연암반	경계/방어	길이 5.1km
		성문	성문, 암문, 수문	출입/배수	2개

그림 1. 신청유산의 구성요소 분포도



○ 유산개요

- 신청유산은 조선 왕조의 수도 한양의 방어를 위해 18세기에 완성된 성곽군으로 수도를 둘러싼 한양도성, 배후산성인 북한산성, 차단성인 탕춘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한반도 도성구조와 자연지형을 활용한 성곽 축성기술을 계승하고 있는 성곽군으로, 18세기 수도성곽, 방어산성, 차단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성곽 유형의 발전단계를 보여준다.
- 신청유산은 서울 도심과 인근의 배후 산악지역에 위치한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세 개의 성곽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형태로 14세기 한양도성이 건립된 이후, 18세기 수도의 방어력 강화를 위해 한양도성을 개축하고 그로부터 약 5km 떨어진 산지에 방어산성을 축성하였다. 그리고 수도성곽과 방어산성을 잇는 차단성을 건설함으로써 일체화된 성곽구조를 완성하였다. 신청유산을 구성하는 한양도성(18.6km), 북한산성(11.6km), 탕춘대성(5.1km)은 평지와 구릉지, 산지의 능선을 이용해 석성과 토성으로 쌓은 35.3km에 이르는 대규모 수도의 방어성곽이다.
- 한양도성은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에 위치하며 8개의 구간으로 분절되어 있다. 북한산성은 유사시 도성민과 인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산성으로 서울시 종로구,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걸쳐 위치한다. 탕춘대성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사이에 축조된 차단성으로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다.
-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수도성곽은 평지에 성곽을 건설하고 위급 시 인근 산지로 입보하기 위한 산성을 쌓는 이원적 구조와 시가지 전체를 둘러싼 대규모 성곽을 축조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신청유산은 고대로부터 축적된 한반도 수도성곽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창의적인 수도 방어시설로 구현하였다.
- 신청유산은 18세기 축성기술의 발전과 고도화된 관리체계를 예증한다. 신청유산에는 자연지세를 활용한 전통적 축성기술과 18세기 이후의 표준화된 가공석 축성기술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이후 건설된 각 지역의 성곽축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축성의 주체로 군영과 장인이 참여하게 되면서 관리조직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었다.
- 신청유산과 관련된 고문헌, 유산 내부에 남아있는 건물지, 금석문은 18세기 성곽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런 기록물들은 신청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 신청유산은 처음 쌓은 이래 현재까지 본래의 자리를 변함없이 유지해 왔다. 신청유산은 도시팽창과 전쟁 등으로 일부 훼손되었지만 1970년대부터의 복원을 통해 점차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현재 전체 길이 35.3km 중 88.4%에 해당하는 31.2km가 남아있고 이를 통해 축성기술, 관리체계 등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대한민국 문화재청,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는 신청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법제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청유산과 그 주변지역을 보호하는 한편 각종 교육·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산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다) 보존 관리 계획

○ 법적제도

구분	관련 법규
공통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한양도성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탕춘대성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북한산성	자연공원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보호관리체계

- 신청유산의 보존 관리 및 재정 지원은 문화재청이 총괄하며 신청유산의 소재지인 서울시 및 경기도 고양시는 관리단체로서 보존 관리 실무 담당
- 추진근거 :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13), 북한산성 종합정비계획(2015)

표 5. 신청유산 보호관리체계

구분		담당 업무
서울시	문화재관리과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 보존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 탕춘대성 사적 지정, 북한산성 문수봉~용암문 보존관리, 세계유산 등재, 신청유산 활용사업
	한양도성연구소	신청유산 학술조사, 한양도성박물관 운영(상설 및 기획전시, 교육 실시), 동대문역사관 운영, 이간수문·치성 관리
	서울역사박물관	탕춘대성 학술발굴조사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보존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 내부 유적 문화재 지정
	경기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 신청유산 활용사업

[기존 등재신청 분석 및 신청내용 보완]

○ 유산구성

구분	내용
기존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도성 단독 → ‘한양도성-북한산성-연용대성’ 연속유산 구성 • 서울시·경기도 통합등재
수정 및 보완 ('2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맞춰 유산구역 및 구성요소 재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구역) 신청유산의 속성(축성기술, 관리, 각자성적, 성곽유형, 방어시설 및 전략)과 구성 요소인 방어시설과 성내 유적지를 포함하여 유산구역 설정 - 전문위원들의 지적사항 검토 : 도성 내부시설(궁궐, 종묘·사직 등)과의 연계는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관리 등의 문제로 현 단계에서는 포함하기 어려움 • 연용대성을 현재 문화재 지정명인 ‘탕춘대성’으로 변경 • 서울시·경기도·경기도 고양시 통합등재 TF팀을 구성하여 문화재청 및 전문가 의견을 즉시 반영하는 체계 구축

○ OUV 명확화

구분	내용
기존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재기준 (iii) 국왕과 백성이 함께 도성을 사수하는 여민공수 이념이 구현된 성곽구조와 수도방위체계 • 등재기준 (iv) 도시성곽-연결성곽-배후산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3원고리 형태의 대규모 성곽유산 및 한반도 수도성곽의 발달단계 • 등재기준 (vi) 성곽과 지맥관리, 산악순배사상이 일체화된 독특한 사례
수정 및 보완 ('2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재기준 (iii)보완, (iv)집중, (vi)폐기 • 등재기준 (iii) 신청유산은 18세기에 발전한 조선의 성곽 축성기술과 관리체계 종합적으로 예증함 • 등재기준 (iv) 신청유산은 고대로부터 전승돼온 수도성곽과 방어산성의 이원화된 방어체계를 18세기 수도 방어전략의 변화에 대응하여 건설한 성곽군으로, 수도성곽과 방어산성을 차단성으로 연결하여 일체화된 방어시설로 구현하였음

○ 완전성

구분	내용
기존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유산의 통합등재로 인해 한양도성의 완전성 문제 보완(전체길이 40.1km 중 36km 잔존) • 연용대성의 자연지형 및 보축구간을 유산구역으로 포함한 3원고리 형태 • 성곽과 행궁, 군영, 창고 등 유산구성과 관련된 유적 포함
수정 및 보완 ('2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도성 총 길이 18.6km 중 14.5km 잔존(78%), 신청유산 전체 35.3km 중 31.2km(88.4%) 잔존 • 한양도성 완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 유구 발굴 시 사적으로 추가 지정(DDP, 남산 회현자락, 월암 근린공원) - 성벽유구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하물리탐사 실시 및 유산분포지도 작성(이코모스 전문가 자문사항) - 2023년 단절된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복원 방안 연구 예정 - 한양도성의 성곽 잔존구간을 측량하여 도면화(2014~2015) - 단절구간 바닥에 흔적을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한양도성의 선형과 정보 전달 - 대중교통(버스)에서 한양도성 경계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안내 방송 멘트 : 여러분은 지금 한양도성이 있었던 경계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 비교분석

구분	내용
기존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개 세계유산목록 및 세계유산잠정목록과 비교분석 • 15~17세기 도시성장과 화약병기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보편성 가운데 신청유산의 독창적 변화 도출 • 동아시아 여타 국가와는 다른 수도성곽 유형임을 확인
수정 및 보완 (’2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유사유산 및 국내 세계유산목록 중심의 비교분석 • (입지 및 유형) 성곽은 평지산지에 입지한 단일형(단곽식), 다중형(복곽식)으로 발전 → 신청유산은 ‘수도성곽과 방어산성, 차단성으로 연결된 성곽군’으로, 한반도 성곽건설 전통을 창의적 계승 발전 • (축성기술) 지역별로 토축, 석축, 전축 등 다양한 축성재료 사용과 축성기술의 발전 → 신청유산은 지형을 활용한 한반도 석성 축조의 전통을 계승하며, 18세기에 표준화된 소성석 축성기술로 발전 • (화약무기에 대응) 포루 등 새로운 시설물 등장, 유럽의 보방식 공법 도입하는 등 변화 → 신청유산은 화약병기 사용에 대응하여 여장에 총안을 설치하고 표준화된 성들을 사용하여 성벽을 견고하게 개축, 18세기에 국방전략을 수도 방어 중심으로 변경하고 배후의 험준한 산지에 건설한 방어산성으로 입보하여 농성하는 전략을 마련함 • (건설 및 관리체계) 일반인 동원체계에서 전문장인 담당으로 변화, 각자성석 등이 이를 증거함 → 신청유산은 18세기 군영을 중심으로 장인 승려, 백성을 동원하여 성곽을 축성 관리하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함. 이는 각자성석과 기록문헌을 통해 입증됨 • 국내 세계유산목록 중심의 비교분석 • 신청유산은 수도성곽-방어산성을 차단성으로 연결하여 유기적인 수도방어시설로 완성함. 이는 한반도 수도방어성곽의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사례임 • 18세기의 표준화된 소성석 축성기술이 적용되어 축성기간의 단축, 전문성 성취 • 군영의 주도 하에 전문장인이 축성. 발전된 축성기술이 지방의 읍성과 산성 건설에 영향을 줌

○ 기타 (진정성 및 보호관리)

- 2016년 이코모스 현지 실사에서 한양도성의 진정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음
- 한양도성의 보호관리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음
- 한양도성의 보호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북한산성 및 당춘대성에 통합 적용할 예정임

바. 전문가 검토 의견

- 회의일시 : 2022.○.○.(수) 14:00, ○○○○○○ 열린만남터 접견실
- 검토자 : ○○○(○○○ 실장), ○○○(○○분과 전문위원), ○○○(○○○ 명예교수)

- 검토의견(요약)

[신청유산의 설명]

- 신청유산의 속성(전체, 개별) 또는 핵심가치를 드러내는 명칭(국영문)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현재 명칭은 제시하려는 특성 파악이 어렵고 신청유산명과 신청유산이 기능하던 시대의 명칭 등이 모호하므로 재검토 필요함
- 신청유산은 18세기 전반 수도 한양의 방어력 강화를 위해 당시 도성을 개축, 방어형 산성을 축성, 연결성곽을 건설하여 '18세기 도성방위 완결체'를 이룩한 것임. 도성을 지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국가방위의 완성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개별유산의 연속성으로 보기보다는 한양도성이 완성된 후 보완시설로서 북한산성이 축성되고 탕춘대성이 완성되어 수도방위시설로서 단일복합체를 이룬 것으로 서술해야할 것임. 2aiii 2에서도 각 산성의 구분 없이 전체유산의 특징을 서술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2aii 전체 유산에 대해 역사적 나열 위주로 서술하여 신청유산의 형성배경과 과정, 유산의 특별한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움. 신청유산의 완성형 방어시설 증명을 위해 과거의 산성들과 신청유산과의 차이점이나 유사성을 부각시켜야 함. 신라시대에 차단성을 축조했다는 기록이 있어 신청유산이 수도성곽, 배후산성, 차단성으로 유일하게 결합된 형태라는 기술은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신청유산이 실제 방어시설로 활용된 예시가 없어 수도방어의 전통이 창의적으로 발전된 사례라는 근거가 부족하며, 평지성과 산성, 차단성의 축조방식을 완성형이라고 입증할 건축학적, 기술적, 실증적인 근거가 필요함
- 2aiii 개별유산에 대한 설명에서 북한산성은 성벽, 성문, 장대(동장대, 남장대, 북장대), 유영(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행궁, 승영사찰(중흥사지, 부왕사지), 창고(상창, 중창, 하창, 호조창) 등 유형별 서술을 고려할 필요 있음

[등재기준 서술]

- 신청유산의 등재근거로 제시한 유기적 방어시설 구현, 성곽축성기술의 발전단계 입증, 성곽운영체계의 조직화 등은 결과물로 나타난 현상이므로 신청유산의 사회경제적 상황(대동법 시행 등으로 인한 노동력 사역 변화, 신분제도 변화, 화폐 경제로의 이행이 촉진되어 결과적으로 축성시 규격화된 벽돌 사용에 적용된 점 등)등의 형성배경을 기술하여 보완할 필요 있음. 또한,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이 연결되면서 한양도성의 기능과 국가 방위체계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신청유산의 핵심가치로 고려되어야 함
- 등재기준 (iii) 속성을 충족하는 근거가 부족함. 비슷한 동북아시아권 유산과 비교하여 신청유산이 독보적이고 희소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비슷한 축조 방식일지라도 탁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함
- 등재기준 (iv) 속성을 충족하려면 한국의 18세기 방어시설과 체계가 인류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함. 신청유산이 현재 서울의 도시 계획과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청유산의 경관적 가치를 부각

시킬 필요 있음. 또한 신청유산의 자연지형을 이용한 건축기술의 특별함과 군사·사회적 목적에 의한 인위적 경관 조성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오랜 세월에 걸쳐 기술발전, 도시계획이나 조경계획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 등재기준 (ii)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필요함

(ii)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어야 한다.

-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14~19세기 동북아시아의 성곽건축 기술 중 한반도의 독창적 축성기술의 변화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으로 18세기에 국한하지 않은 건축학적,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부가할 필요가 있음

[비교연구]

- 비교연구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함. 비교대상의 선정기준으로 형태적 속성과 성곽유형 비교, 동아시아 주변국 수도성곽과의 비교, 동시기 국내 유사유산(남한산성과 수원화성)과의 심층비교가 필요함. 특히 남한산성과는 17~18세기 건축, 수도방어시설, 소성과 축성 기반의 건축기법, 피난 공간이라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차별화를 두어 신청유산이 어떠한 점에서 독보적인지를 부각시켜야 함
- 3.2.a. 세계 유사유산과의 비교에서 지역별 구분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와 근세의 역사를 유럽으로 묶은 것을 시기별로 세분화해야 하며 아시아 또한 소아시아, 인도지역 등으로 구분 등 세계사 부도의 공통적 구분을 따를 필요 있음
- 3.2.b. 중국 축성사 관련해 신청유산과 비슷한 시기인 명·청대 도시성곽의 서술을 늘리고, 토축을 위주로 한 벽돌 성벽과 비교해 조선 후기 지방도시의 석축 성벽과 평지성과 산성이 한 단위를 이루는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소개가 필요함
- 3.2.c. 한반도 유사 유산과의 비교에서 지방도시와의 비교가 많이 보완될 필요 있음. 신청유산이 위급 시 배후 산성에 입보하여 농성하는 예비 방벽을 갖춘 점을 강조하고 조선후기 대표적인 지방의 감영과 병영 도시와 비교해야 함. 개성의 도시성, 대흥산성, 서울 남쪽의 화성, 독산성, 청주의 충청병영성, 청주읍성, 상당산성, 전주부성과 남고산성, 나주읍성과 금성산성 등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신청유산이 도시의 평상시 방벽(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성벽으로 연결한 유일한 최고위 산성임을 서술해야 함

[완전성과 진정성]

- 유산이 입지한 주변환경과 경관의 시대순 변화를 서술하여 개발 또는 방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고 속성들의 완전성에 대한 서술이 필요함. 특히 한양도성은 북한산성, 탕춘대성과는 달리 여러 구간이 멸실된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북한산성 행궁을 비롯한 균영, 승영사찰

등 기타 건물 유구의 경우 학술적 발굴조사와 고증을 기반으로 복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있음

- 신청유산이 다른 성곽유산과는 다르게 성벽의 축성 및 보수와 관련된 기록이 잘 남아있고 성곽관리 측면에서도 역사적으로 담당권역, 정기적 점검, 승군의 보수·관리 기능에 대한 가자성석 등의 기록문헌이 있다는 점을 완전성 측면에서 강조해야 함
- 진정성 관련하여 성곽주변, 성곽 부속건물의 위치와 주변환경의 관계 등 신청유산이 입지한 환경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신청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명시할 필요 있음. 1970년 이후 보수·복원사업의 조사, 기록, 설계, 시공 과정에서 원형의 고증, 전통기술 적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며, 3.2.e. 동아시아 및 국내 유사유산 비교분석에서 언급한 신청유산의 보편적인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설정]

- 내성인 궁성, 성곽 관리와 운영을 담당했던 도성내 군영시설(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충융청)은 유산의 형성과 운영에 직접 관여한 주체로서 유산구역으로서의 포함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발압력이 많은 한양도성 구간의 향후 경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보존관리계획]

- 신청유산의 방대한 규모와 산악지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문객 관리, 유산에 대한 물리적, 정보적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함
- 5aii 토착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서술은 수정되어야 함. 신청유산은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거주하던 곳으로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서술은 인류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개발압력에 대한 대처방안은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지로 풀어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유산지역과 완충지역 주변 주민들과 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협력체제가 필요함
- 한양도성의 경우 유산구역에 주거밀집지역이 포함되어있고 주변마을 주민들은 유적 정비복원사업과도 관련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간들의 소유권과 거주권에 대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사전 예측하여 대책 제시 필요함

사. 소관부서 검토 의견

- 이번 등재신청서에서는 유산의 명칭 재검토, 등재기준 (vi) 및 관념적·추상적 개념을 삭제, 비교연구 보완, OUV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 추가 등 기존의 여러 지적 사항을 많이 보완한 것과 함께 전체적인 구성과 용어, 개념이 정비됨
- 유산에 대한 설명 시 신청유산 구간별 설명과 구성요소 단위의 설명이 서로 연결시키기 어렵게 기술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해당 지자체의 등재추진에의 강한 의지와 역량(서울-경기도간 협력체 구성 및 공동연구, 집필 연구진의 능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집필진, 전문가 문화재청의 검토를 통해 신청서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비교연구 등 후속연구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우선등재목록'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아. 의결사항

- 원안 가결함
 - 출석 7명 / 가결 7명

3.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

가. 제안사항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에서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Petroglyphs in the Bangudae Valley>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2022년 제3차 회의(2022.5.12.)에서 “보류”됨에 따라, 등재신청후보로 선정할지 여부를 재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0조, 11조

제10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 ① 시·도지사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우선등재 목록 유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접수된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7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제3항에 따른 평가과정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유산의 후보 지위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지 1차 보완사항을 통지하며, 전년 3월말까지 2차 보완사항을 통지한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1, 2차 보완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등재추진 경과

- 2010.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5.3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부결”
- 2020.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보류”
- 2021.3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선정”
- 2022.5월 : 등재신청후보 심의 “보류”

라. 등재신청후보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등재신청후보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반구대 신청내용(*울산광역시 작성, 세부내용은 요약자료 참조)

<유산구역 현황>

신청유산명	중앙점좌표	유산구역 면적	완충구역 면적	총 면적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N35°36'30.42", E129°10'26.39"	42.30(ha)	205.63(ha)	247.93(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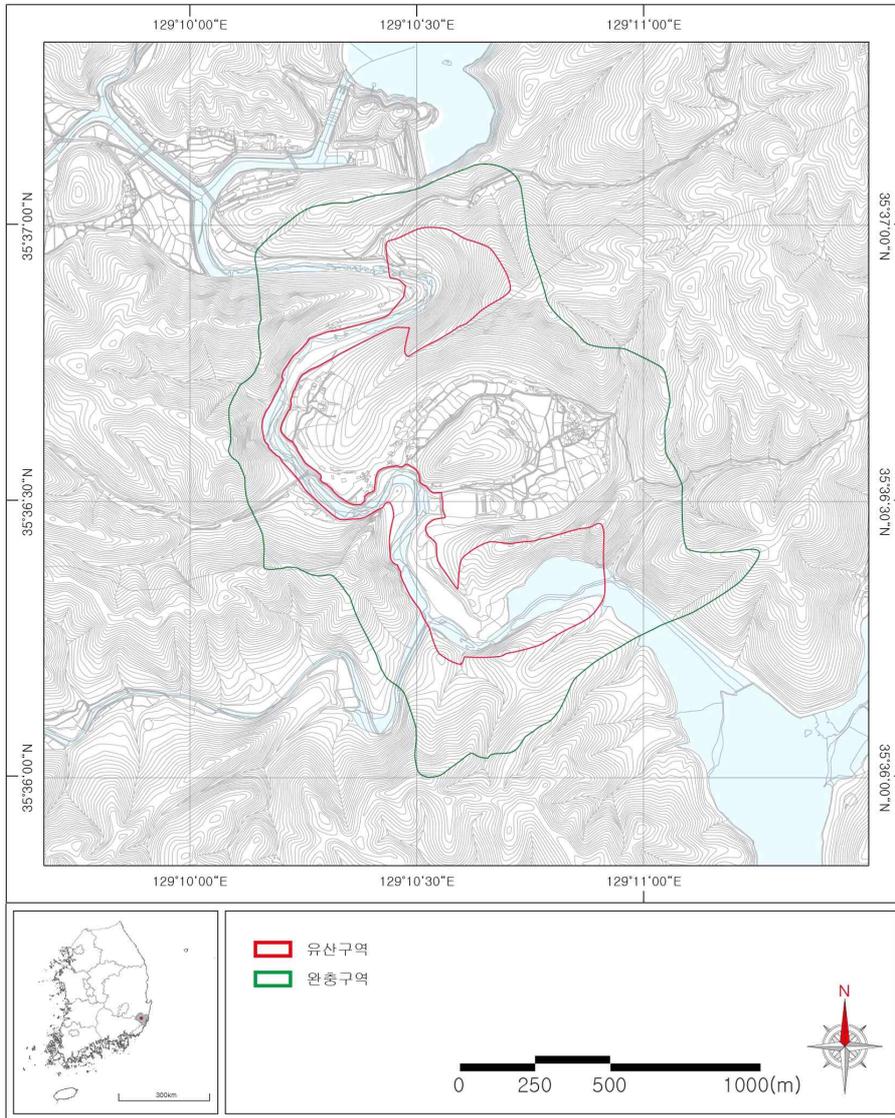


그림 1.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도

○ 종합요약

- 신창유산은 동아시아 대한민국 동남부 연안지역의 울산 반구대 계곡 일대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사람들이 찾아와 개인 집단의 염원을 담아 그림과 문자를 새기던 특별한 공간이다.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 해양어로 활동을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표현한 대곡리 암각화, 인류 사회발전의 보편적 경향을 그림과 문자로 집약적으로 표현한 천전리 암각화, 두 암각화를 자연·환경적으로 연결해주는 계곡부로 구성된다.
- 신석기시대 해양어로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대곡리 암각화는 고래를 비롯한 바다동물과 육지동물들의 형태와 생태적 특징이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고래와 고래사냥 그림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소한 주제이다. 대곡리 암각화에는 고래사냥 활동의 전 과정이 탁월한 표현기법과 독창적인 구도로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를 통해 고래사냥 활동의 가장 이른 시기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신석기 시대 고래사냥의 구체적 실제이자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증거이다.
- 천전리 암각화는 서로 다른 시대와 주제의 그림들이 한 바윗면에 조화롭게 새겨진 이례적인 암각화로, 지역의 오랜 바위그림 제작전통을 증거한다. 천전리 암각화에는 신석기 시대 동물그림을 시작으로 농경사회의 기하문, 고대국가 신라의 세선그림과 문자까지 한 바윗면에 조화롭게 새겨졌다. 이는 수천 년 간 인간의 관념에 대한 표현방식을 집약하여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대곡리 암각화에서 천전리 암각화로 이어진 암각화 제작전통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면서 인간의 표현방식이 시대와 사회문화상에 따라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수렵 채집 어로사회의 구상그림, 농경사회의 추상그림, 고대국가의 문자로 연속성 있게 표현되었다. 두 암각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높은 산지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와 수직절벽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더욱 상승된다.

○ 등재기준의 타당성

기준(i) :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동물의 생태환경, 시대와 주제가 다른 그림들을 일정한 영역별로 배치한 구도의 독창성이 보인다. 또한, 신창유산의 그림 중에서 신석기 시대 고래그림은 동물의 종과 생태적 특징이 탁월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표현된 유례없는 걸작이다.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인류 사회발전의 보편적 경향이 그림과 문자로 집약되어 남아있는 탁월한 유산이다. 동아시아에서 수렵·채집·어로사회, 농경사회, 고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표현방식이 변화되는 과정과 서로 다른 시대의 사회문화상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특히, 신석기 시대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인 고래사냥 활동의 구체적 실제이자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로,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 중 하나이다.

○ 완전성에 대한 기술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며 완전성을 충족한다. 두 개의 암각화와 이를 연결하는 반구대 일원의 지형 요소들은 형성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완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신청유산의 규모는 수 천 년 동안 암각화의 제작전통이 이어진 반구대 계곡이라는 공간의 특별함과 그림의 예술적 가치, 이례적이고 특별한 관습의 증거인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신청유산의 일부는 환경적 압력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유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주요 속성인 암각화와 계곡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 또는 방치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진정성에 대한 기술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위치와 주변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 신청유산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연 지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측면에서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처음 조성된 원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충구역 밖의 환경적 압력으로 인해 주변환경이 일부 변환하였으나 입지, 지형적 특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보호관리 요건

-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전체는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개발행위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특히 유산구역에 있는 두 암각화는 각각 국보로, 반구대 계곡 일대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 보존과 정비는 신청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 유지를 위해 전문기관과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한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는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유산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나아가 유산에 가해지는 환경적 압력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역민의 인식변화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산의 안정성과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등재신청 심의의견에 대한 보완]

○ 신청유산 설명의 적정성

- 2장에서 신청유산이 연속유산은 아니더라도 현재의 설명은 종합 기술과 개별기술 모두에서 두 개의 구성요소가 혼재되어 있음
- 2.b 부분에서 신라 이후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설명이 누락
- 암각화 제작과 의례행위의 관련성. 신청유산이 의례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떤 집단이 어떤 루트를 통해 계속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 필요

- 유산의 명칭은 전 세계인이 누구나 쉽게 유산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나 현재 제시한 영문명(Petroglyphs in the Bangudae Valley)은 재고가 필요함. 정식 행정명칭 사용 등 국제적으로 쉽게 위치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완방향>

- 천전리 암각화와 대곡리 암각화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은 구분하여 서술하고, 공통된 부분을 설명하거나 신청유산을 지칭할 때는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를 사용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함
- 신라 이후 고려·조선시대 내용을 추가하여 반구대 계곡의 공간성에 대한 진정성을 강화시킴. 신라 시대 이후 암각화 제작전통이 이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반구대 계곡의 뛰어난 자연경관이 문화경관으로 재발전하였음을 2.b에 추가
- 신라 시대 문자의 내용을 추가 분석하여, 신라 시대 때 반구대 계곡의 의례적인 측면은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작자의 맹세, 소망기원을 위한 것임을 보완하여 서술
- 동일한 공간 내에서 연속성을 가지며 두 개의 바윗면에 암각화가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반구대 계곡을 특별한 장소로 여기는 관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임을 강조
- 현재 제시한 영문명은 검토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종 신청서 제출 전까지 신청유산의 명칭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임

○ 등재기준 서술의 완성도

- 등재기준을 i 과 iii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등재기준 i의 경우 신청유산이 세계적인 결작으로 판단된다는 객관적인 제시가 부족
- 등재기준iii의 제시에서 신석기~청동기~고대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본 신청유산이 어떠한 시대문화상으로 입증하는지 정의가 모호함
- 천전리 암각화와 대곡리 암각화를 다소 무리하게 종합함으로써 등재기준에 따른 가치 서술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보완방향>

- 탁월한 표현기법이 능숙하게 발휘된 점과 여러 이질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배치된 구도의 독창성을 부각하여, 신청유산이 가진 그림으로서의 가치를 강화함
- 수렵어로 사회인 신석기시대 그림은 사냥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사실적인 구상그림으로, 농경사회인 청동기시대 그림은 농경과 밀접한 자연 현상을 형상화한 기하학적 추상그림으로, 고대국가 단계인 신라 시대에는 문자가 새겨져 있음을 보완하여 설명
- 대곡리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의 회화적인 특징은 구분하여 서술하고, 두 암각화를 종합하여 암각화 제작의 연속성과 사회문화상을 서술함

○ 진정성 및 완전성

- 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 요소가 포함되고, 적절한 규모이며, 개발이나 방치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서술되어야 하나 아직 미비함
- 대곡천의 두 댐이 유산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향후 수문설치로 인해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충족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함
- 고지형과 현 지형이 상이한 상황이 진정성 부분에서 설명되어야 함

<보완방향>

- 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의 포함, 적정 규모, 개발의 부작용으로 인한 영향이 없음을 서술함. 특히 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댐과 유산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완전성과 진정성에 훼손을 줄 만큼 영향이 없음을 확인함
- 고지형과 현 지형이 상이한 구하도 부분은 암각화가 새겨지기 전에 발생한 지질학적인 상황임을 명시함

○ 유산구역/완충구역 설명 타당성 및 지도 표현

-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지도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자연 지형뿐만 아니라 인공시설물로도 유산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는 등 지도 부분은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보완방향>

- 유산의 경계 설정 검토 결과, 암각화 제작배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변환경을 포함하여 암각화로부터 가시권의 경계인 첫 번째 능선까지와 하천을 따라 수직절벽면을 기준으로 유산구역 설정. 이러한 설정을 근거로 하여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도 수정

○ 비교연구의 충실성

- 비교연구를 통해 암각화 자체의 분석과 함께 주변환경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며, 등재기준 i 을 입증하기 위한 비교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비교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유산과 기 등재 유산이 어떤 유사점과 차별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주목하여 서술을 다듬을 필요가 있음

<보완방향>

- 같은 지리 문화권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바위그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입지환경을 비교연구 함
- 이를 통해 신청유산의 입지환경이 세계 주요 바위그림과 보편성을 보이는 반면 한반도 내에서는 유일한 사례임을 입증

○ 보호관리 계획의 타당성

- 우선등재목록 선정 시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대책을 조속히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이 요구된 바 있으나, 현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됨
- 대곡댐과 사연댐의 규모, 양식, 수위 변화에 따라 유산에 미치는 영향의 종류, 현황 및 결과가 서술되어야 사연댐 수문 설치가 유산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제시가 가능함
- 유산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소로서 기후변화 부분 누락
- 유산의 관리와 모니터링 관리 주체, 보존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 계획, 유산의 효과적 해설 전달 방법, 이해당사자와의 협력관계 등에서 등재 이후 유산 관리 계획에 대한 서술이 미진함

<보완방향>

- 세계유산협약의 등재신청서 양식 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함
-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에 대해 현재 위협요소 제거 계획에 국한되지 않고, 잠재적인 위협요소 등에 대비한 보존관리 계획이 현실성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제시함
- 등재신청서 5장 부분에 등재 이후 유산 관리 계획을 서술함. 등재 이후 관리체계는 현재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반구대 암각화 센터(가칭)라는 조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임. 보존관리, 연구, 홍보 등 통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용역 시행 중에 있음
- 현재 울산시에서는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바위면의 보존상황 조사, 주변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음. 또한 세계유산제도에 맞는 보존관리방안을 위해 '반구대 암각화 보존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문화재청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등재신청서에 담길 예정임
- 등재신청서 4.a. i 부분에 대곡댐과 사연댐의 현황과 사연댐 수문 설치가 유산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 수문 설치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이해당사자 간의 노력 등을 전체적으로 서술
- 등재신청서 4.b. ii 부분에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집중호우, 지진, 화재 등)의 돌발성 증가에 따른 위협을 인지하고, 정부와 시에서 수립한 자연재해 대응방안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유산에 적합한 대응방안 제시

바. 전문가 검토 의견

- 회의일시 : 2022.○.○.(월) 14:00, ○○○○○○ 회의실
- 검토자 : ○○○(○○분과 전문위원), ○○○(○○분과 전문위원), ○○○(○○○ 사무관)

○ 검토의견(요약)

[신청유산의 설명]

- 기존 지적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과도한 서술부분을 수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여겨지나, 논리적 적합성을 포함하여 개선할 사항들이 있음
- 유산의 '장소성'에 대한 추가 보완 필요함
 - 신청유산은 내용면에서 하나의 화면에 여러 시대의 행위가 담겨 있고 형식면에서 제작집단, 제작기술의 다양성이 나타나며, 기능면에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시기와 집단에 따라 암각화의 내용과 기능이 달라지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산의 '장소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의 기능과 성격 관련하여 장소성의 보완설명이 필요함
 - 반구대 계곡의 바윗면이 반복적으로 이용된 것을 암면의 물리적 특성(그림을 새기기에 적합한 넓고 판판한 바위면, 이를 보호하는 처마구조, 암각화를 새기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어 반구대 계곡이 의도적으로 선택된 이유의 근거로 부족해 보임. 또한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시대 근현대에 이르는 반구대계곡의 경관성, 물과 어우러진 장소의 특성 등의 요소를 부각시킬 필요 있음
 - 고려·조선시대에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전통은 단절되었으나 역사적 맥락에서 특별한 장소로서의 의미가 지속된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구서원, 집청정 등이 소재하는 지역을 유산구역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또한 고려시대 이후 내용을 암각화에서 제외하려면 바위에 새기는 방식보다 다른 방식이 보편화가 되었다는 점을 서술할 필요가 있음
- 암각화의 내용이 사회관습 증거인지 또는 의례적 증거인지 설명이 필요함. 등재 기준에는 암각화의 사회문화상만이 언급되어 있지만 2장에서 서술된 입지적, 상징적, 의례적 측면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해당되는지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고 특히 '의례적 중요성'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 보임
- 2.b. 역사와 발전에서 언급된 '특별한 관습'이 무엇인지, 그림의 제작과 표현기법 항목에는 신석기만 언급된 이유가 무엇인지, 추상그림이 농경사회의 사회상을 어떻게 반영한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함
- 2장과 3장의 속성과 관련해 논리적 일관성이 필요함. 2장은 제작시기, 주제, 제작 및 표현기법, 구도를 제시하고 3장은 입지환경, 미적우수성, 희소성, 독창성, 전통과 특별한 관습을 들고 있음. 2장 설명과 3장의 비교분석에서 제시한 항목의 편차가 확인되므로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2, 3장의 구성방식의 재편성이 필요해 보이며 가급적 비교분석에서 사용된 이코모스의 가이드라인(Rock art : Pre-nomination Guidelines)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임

* "Rock art : Pre-nomination Guidelines" : 바위그림의 세계유산적 가치로 중요한 것은 1. 환경과 지형의 우수성과 완전성 2. 바위그림 자체이며, 바위그림을 평가하는 주요요소로 미적우수성, 희소성과 독창성, 양적규모, 해당지역의 오랜 제작전통과 특별한 관습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등재기준 서술]

- 등재기준 (i)의 경우, 배치 구도가 독창적이고 고래 그림의 표현기법이 탁월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서술된 배치 및 구도의 독창성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 서술이 필요하며 고래 그림의 경우 회화적 관점에서 결작 수준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서술이 보완되어야 함. 비교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을 반영하여 신석기 시대 동물그림에 나타나는 표현기법과 내용, 양식적 특징을 충분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제시된 시대와 주제가 일정한 영역별로 배치된 것이 유래 없는 결작에 해당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등재기준 (iii)의 경우 대곡리(신석기)와 천전리(신석기-청동기-신라) 암각화는 각각 시기적 편차를 가지는데 혼재되어 모호하게 서술됨. 두 암각화 사이의 시기적 편차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할 것인지, 고려 및 그 이후 시기의 석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등재근거를 뒷받침할 유산에 대한 속성과 속성별 기여도에 대해 구체적인 표를 구성하여 제시할 것을 권함

[비교연구]

- 이코모스 가이드라인(Rock art : Pre-nomination Guidelines)을 따른 것은 적절하지만 가이드라인과 신청유산이 제시하는 속성과의 유기적인 서술을 통해 비교분석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현재 다양한 암각화의 유산사례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대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유산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산들을 선정하여 신청유산의 탁월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구체화하여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완전성과 진정성]

- 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암각화 보존환경의 변화(사연담 수문 설치 등)에 따른 신청유산의 완전성 유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추가 되어야 함
- 신청유산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선 암각화가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제작되었다는 고고학 자료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서술해야하며, 암각화 주변 지형의 여러 변화과정(고지형과 현재 지형에서 유로 변경, 댐 건설 등)이 있었음에도 신청유산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진정성 부분에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설정]

- '반구대 계곡'이라는 지명의 유래와 반구대 계곡의 공간적 범위 설정, 암각화 제작배경에 중요한 주변환경을 포함하여 유산구역을 가시권으로 설정한 이유와 가시권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 지정 구역과 일치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반구천'은 조선후기 지도에서 확인이 되는 유래가 있는 지명이며 명승 지정명칭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음. 또한 유산구역을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과 동일하게 조정하면

신라 이후 고려·조선시대 반구대 계곡의 자연경관과 인문학적 전통이 계승되면서 나타난 반구서원, 집청정 등이 유산구역에 포함되면서 유산 명칭, 유산 설명, 유산구역이 상호 연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존관리계획]

- 사연댐과 대곡댐 관련하여 조례 제정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유산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로서 집중호우 등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전략, 압면 보존 및 회복탄력성 유지 방안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함
- 4biii 관광, 인간 활동과 지속가능한 활용과 관련하여, 돌봄사업과 교육에 대한 부분 이외에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서술 보강 및 실질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5a 이해당사자와 관련하여 신청유산의 이해당사자는 해당 지역주민(울산 시민)이므로 사연댐 수위조절 관련 합의 문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5eii 현재 등재신청 단계와 큰 차별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등재이후 신청유산 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며, 등재이후 세계유산 추진단이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 전담 기구인 반구대 암각화 센터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문화재청, 울산광역시 등 기존 조직과의 상세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계획이 보강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 부서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사. 관련부서 검토 의견

- 신청유산이 환경적 영향을 일부 받고 있으나 암각화와 계곡은 양호한 상태이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상호 협조적 노력 하에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또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연 지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형태와 디자인, 재료 등에서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신청유산 대부분은 '문화재보호법'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유산구역은 '수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추가적인 개발우려는 없어 보임
- 신청유산 암각화의 완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수문설치 등을 통해 대곡천의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로 선정될 필요 있음
- 2021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 문화재청, 울산광역시, 수자원공사, 반구대암각화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대곡천 사연댐 수문설치,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

아. 소관부서 검토 의견

- 기존 지적사항을 어느 정도 보완·수정한 점은 긍정적임
- 신청유산의 구성요소인 지정문화재 명칭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 명칭과 상이하여 명칭에 대해 직관적 인식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2021년 지정된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의 문화재구역은 신청유산의 유산구역보다 조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유산이 반구서원, 집청정 등 조선시대 유산을 포함하게 된다면 유산구역을 명승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설정도 고려해 볼 만함

*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 문화재구역은 689,995㎡으로 대곡천과 천전리 일대 공룡발자국 화석, 두 암각화, 반구서원 집청정 등 국가 및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은 문화재구역 반경 500m(산림지대는 500m, 서울은 100m, 상업도시는 200m가 기준)로 지정

- 등재기준 (i)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림들의 구도와 고래 사냥 그림의 회화적 독창성에 대한 보완 서술이 필요해 보이며 구도와 표현기법이 어떠한 면에서 탁월한지, 반구대의 고래그림이 다른 비교유산들과 달리 어떻게 창의적으로 표현되었는지 세밀한 묘사가 필요함. 또한 반구대의 장소적 특수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신라시대에 왕족과 종교인들이 왜 반구대를 방문해서 명문을 남겼는지 장소적 특수성을 금석문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 보완하고 회화적 독창성과 '특별한 장소성'의 근거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에 대한 상세한 연구분석이 필요함
- 유산에 대한 위협요소 관련 기후변화에 따른 보존관리대책이 물 문제만 다루고 있어 여전히 미비하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할 필요 있고 이해 당사자(지역주민, 소관 유관 지자체 등)가 참여할 수 있는 보존관리 체계 필요함
- △ 등재신청후보 선정 후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이며 보다 효과적인 신청서 보완 검토가 가능한 점, △ 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을 기반으로 후대에 전하기 위해 시급히 해당 유산의 세계적인 가치를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점, △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등재신청후보 선정 후 등재신청대상 선정 심의를 위해서는 관련 예규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소위원회)-문화재청-울산시-울주군의 긴밀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 계획 수립과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자. 의결사항

- 보류함
 - 출석 7명 / 보류 7명

검 토 사 항

1. 안동 하회마을 주민생활 기반시설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주민생활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 안동시가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한 사전 영향 검토를 의뢰하여 관련 내용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국고보조율 70%)으로 안동시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하회마을 주민생활 기반시설(LPG 배관)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이 세계유산 영향 검토를 요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안동시청(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 (2) 세계유산/구성요소 :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 하회마을 (2010년 등재)
 - 대상문화재명 : 안동 하회마을(국가민속문화재 / 1984년 지정)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등재 기준

- (iii)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대표적인 씨족 마을의 예로써, 조선시대 초기의 특징인 촌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을의 입지와 배치와 가옥의 전통에서 두 마을은 500여년 동안 엄격한 유교의 이상을 따라 촌락이 형성되었던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줌
- (iv) 하회와 양동 두 마을은 한반도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조선왕조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양반과 평민 가옥들의 전체적인 배치와 개별적 배치의 조화는 조선왕조의 힘과 영향력이 문학과 철학적인 전통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적 전통에도 배어있음을 의미한다.

(3) 신청내용

- 사업명 : 안동 하회마을 주민생활 기반시설 구축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9번지 일원
 - 세계유산구역 및 국가민속문화재 지정문화재 구역 내 위치
- 총사업비 : 3,700백만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공급세대 : 안동 하회마을 내 126세대
- 저장시설 : 소형저장탱크 2.45톤 × 2기
- 배관망 : [공급시설] 63~90mm PE배관 약 4.0km / [사용시설] 63mm PE배관 약 1.8km
- 사업내용 :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LPG 보일러 설치 등

구 분	공사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LPG배관망	저장탱크: 2.45*2.45TON 2기	2,300	민간위탁
	기화기: 전열온수식 강제기화기 200Kg/hr 2EA		
	매물배관: KSM 3514(PE)63mm		
	세대내부 배관: KSD 3631 32A(입상관)~20A(내관)		
	가스계량기, 가스보일러 126		
통신(KT)	동케이블 → 광케이블로 교체	500	민간위탁
도로포장 외	폐기물, 흙콘크리트 포장(7.8km), 배수시설 설치	900	직접시행

(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2년 하반기 중 문화재청의 실시설계 승인 필요

- 2020.6. : 하회마을 공동구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종료→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결정
- 2020.9월 / 2021 11월 : 안동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 2021.1~2월 : 하회마을보존회, KT, LPG배관망 사업단, 한전 협의
- 2021.11. : MOU 체결 (안동시⇔LPG배관망사업단⇔하회마을보존회 및 안동시⇔KT)
- 2022.3월 / 6월 : 주민설명회 개최/LPG배관망사업단 실시설계 중(현재 중지)
- 2022. 8월 : 제5차 문화재위원회(세계분과) 심의결과(*의결사항 : 보류)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회(세계분과) 가결 이후: 실시설계 완료, 사업자 선정 등 공사 착공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함
 - 방호벽과 차폐시설을 하회마을 경관과 전통에 맞도록 보완하여 처리할 것
 - 출석 7명 / 가결 7명

2.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황룡사지 남쪽광장」(세계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 / 구성요소: 황룡사지)의 남쪽광장 정비 사업계획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황룡사지 남편에서 너비 50m, 길이 500m로 추정되는 규모의 광장유적이 발굴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립된 정비 사업계획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에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 신청인 : 경주시청(왕경조성과)
-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황룡사지 (사적/1963.1.21. 지정)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20-1 일원
 - 세계유산명 : 경주역사유적지구(황룡사지구)
- 신청내용
 - 부지 복토정비 (면적 22,500㎡, 성토높이 H=1.5m(유구보호층))
 - 담장 정비
 - 담장 재현 L=81m, H=4.0m, 담장 유구표시 L=210m, H=0.6m
 - 탐방로 조성 (B=3m, L= 300m), 조경 (소나무 10주, 잔디식재 4,139㎡)
 - 배수시설 (관로 D300 L=295m, D600 L=371m)
 - 안내판 5개소(종합안내판, 권역별 및 개별 안내판)

라. 추진 경과

- 2015 ~ 2020 황룡사지 남쪽담장 외곽부지 발굴조사 (31,166㎡, 광장, 차단·차면 담장 등 확인)
- 2021. 09. 02.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2022. 05. 24. 실시설계 수리기술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조경공사 착공 전 수종 선택·배치방식·식재방법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도록 함
- 담장은 시공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도록 함

- 2022. 08.11 5차 세계유산분과 심의(보류)

- 해당사업은 세계유산의 가치·완전성·진정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므로,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정 후 재검토 함

○ 2022. 10.21 세계유산분과 위원 현지조사

- 황룡사의 중심축을 고려한 개방감 확보, 담장길이는 축소
- 발굴조사 성과 고려하여 유구표현, 표현방식에 신중을 기할 것
- 세계유산으로서 이해와 해석에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발굴 조사 된 유구와 재현된 구조물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함

- 출석 7명 / 가결 7명